

# 新 수능 국어 적화 기출 분석

43. 다음 중 수능의 본질은?

- ① 교육과정
- ② 교과서
- ③ 출제매뉴얼
- ④ 평가원 기출
- ⑤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

혹시 다 풀어보셨다면

42번을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깁니다.

또한 제가 만든 43번 문제에 대한 확신, 혹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역시 정독바랍니다.

가능세계 지문에 대한 해설은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 수업 흐름에서 빌드업 목적에서의 해설
2. 6평 시험 이후 학생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강조하는 해설
3. 궁극적인 실전에서의 + 가장 논리적 해설.

첫 시작부터 3을 진행할 수는 없어

수업에서는 1

그리고 해설지에서는 2와 3의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해설은 버전 1과 2, 즉, 앞으로의 수업에서 빌드업 목적의 해설에 집중 바랍니다. 3버전 해설은 추후 다시 정리하면 매우 쉽게 이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해 수능 본질 중 하나인 ebs 연계 배경 지식을 전제하고 낸 문제라서,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답이 2~3개 복수정답으로, 그것을 전제하면 정답은 1개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쯤만 해설하면, 학생들은

“그렇다면 ebs연계 학습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망하는 겁니다.

모든 전제, 시험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가 틀렸고, 잘못되었으며, 아예 성격이 다른, 즉 다른 과목 시험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같은 능력을 묻나요?

이름만 국어로 같을 뿐 성격이 다릅니다.

문법과 문학이 같은 능력을 요구하나요?

같은 국어라는 과목 하위 영역이지만, 다른 능력을 요구합니다.

수학에서 대수학, 기하학, 통계학, 미적분학 모두 다른 성격의 과목인데, 그 정도가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그리고 예전의 1교시 언어영역은 모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사실상 새로운 과목입니다.

물론, 예전 언어영역 접근법으로도 풀리긴 하지만, 결국은 최적화, 방향성에서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작년, 재작년 대치동 12000명 마감반 중, 200명 마감반에 단 한 명도 만점자가 없는 시험이 됩니다.<sup>1)2)</sup> 즉, 우리 모두 완전히 잘못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현 수능 국어는 어떤 시험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정보처리 능력 강화, 평가 시험”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ig Data** (매 18개월 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정보량 만큼이 새로 생깁니다.)

2. **Data Crawling/Mining**

(데이터가 너무 많아 처리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뽑아내기 위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뽑아낸 데이터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1)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 148명, 2020학년도 6월 만점자 65명 vs 수학 가+나형 만점자 2400여명  
2) 9시 수업의 경우 새벽 4~5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누구나 목격했습니다.

3. **Data Structure**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뽑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의 구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00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각 층마다의 안내판이 없다면 우리가 찾는 사무실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1~10 연구실, 11~30, 임원실, 31층 사장실 등등 간판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구조는 내용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1. 시간 부족 1지문 날리는 학생 90%
2. 이해가 안 되는 지문.
3. 정보량이 너무 많은 지문.
4. 뭔가 혼자서 답은 나오는데
5. 실전만 가면 뭔가 되질 않는

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1. 시간 부족 1지문 날리는 학생 90%
3. 정보량이 너무 많은 지문.

평가원에서는, 정보량이 폭발한 이 시대, 꼼꼼하게 모든 정보를 곱씹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시간내 100% 정보처리가 불가능한 정보량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예전 언어영역 접근방법으로 처리하니 시간안에 처리할 수 없는 시험이 됩니다.

2. 이해가 안 되는 지문.

당연히 정보량은 폭발했고, 구조를 중시하지 않는 언어영역 접근법으로 가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보량은 많은데 정보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정보 특징이고, 정확히 평가원 지문들도 그렇습니다.

4. 뭔가 혼자서 나름 답은 나오는데  
5. 실전만 가면 뭔가 되질 않는  
6. 때로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논리적인 답이 나오질 않는

그래도 정보량이 ‘지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시간을 쓰면 풀리긴 하는데...? 어떤 문제는 답이 도무지 하나로 특정지어지지 않고, 해설을 봐도 의아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평가원의 의도이니까요.

이에 따라 간략한 해설, 그리고 궁극적 해설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버전1,2해설에만 집중, 궁극적 해설은 추후 참고 바랍니다.

우선 2019학년도 ebs 연계 교재 지문에서는 위의 내용을 다룹니다. 호흡이 길어지니 본문은 읽지 말고, 오른쪽 정리된 내용만 보기 바랍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p이거나 q이다.  
만약 p라면 r이다.  
만약 q라면 r이다.  
따라서 r이다.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만다.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만약 p와 q가 반대 관계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릇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다는 원리다.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배중률과 무모순율은 "p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일률과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의 기본 법칙'으로 일컬어진다.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다음의 진술들은 반대 관계에 있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 -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ebs 출제된 문항을 보겠습니다.

04 (보기)는 배중률에 대한 비판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배중률은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반드시 옳으므로 "p이다."라는 진술과 "p가 아니다."라는 진술 사이에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됐건 그것은 p이거나 p가 아닌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빠르게나 느리게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① 배중률은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 모두에 관한 법칙이므로 반대 관계인 예를 반례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배중률은 모순 관계에 대한 법칙이고 "이 자동차가 빠르다."와 "이 자동차가 느리다."는 반대 관계이므로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 ③ 배중률은 모순 관계에 대한 법칙인데 "이 자동차가 빠르다."와 "이 자동차가 느리다."는 모순 관계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배중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 ④ 배중률은 반대 관계에 대한 법칙이므로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 ⑤ 배중률은 반대 관계에 대한 법칙이므로 자동차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배중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주제 : 모순관계와 반대관계

ebs 에만	정의	모순관계			반대관계				
		배중률	적용 가능			적용 불가			
	예시	p	~p		참	거짓	거짓	참	
ebs +	참/ 거짓	참	거짓	가능	참	거짓	거짓	참	가능
		거짓	참	가능	거짓	거짓	참	거짓	가능
기출	관계	거짓	거짓	불가능	거짓	참	거짓	참	가능
		참	참	불가능	참		참		

정리하면,

명제의 관계에는 모순관계와 반대관계가 있고,

모순관계는 2항관계, 그래서 p와 ~p만 존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인 관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배중률이라 합니다.

반면,

반대관계는 3항관계, 즉, 중간항이 있는 관계,

따라서, p와 ~p둘다 거짓이더라도, 중간항이 참일 수 있는 관계,

결국, 둘 중 하나가 참인 배중률이 적용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배중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보면, '모순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근거로 2,3선지 집중이 됩니다.

ebs에는 위와 같이 완결된 정보를 주고,  
2019 수능에서는 위의 배경지식을 전제하고,  
요즘 수능 지문의 특징이자, 이 시대 정보의 특징,

**완결성 없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수능의 출제 오류를 지적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서울대 국어교육 학사 석사 박사 10년 넘게 국어만  
연구하신 것은 물론, 국어 교육에 평생을 쏟으시고,  
그 중에서도 천재라고 인정받은 1년에 많아야 2~3  
명이 임용되는 평가원 임용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그  
의도와 흐름은 이해 안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고 비판?

정신나간거죠.

완결성이 없으면 정보처리가 안 되나요?

그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야죠!

이번 우한 폐렴.

정보 없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요?

가용한, 최대한의 정보에서, 가짜 정보 쳐내고, 유의  
미한 정보에 집중해 최선의 정보처리에 따른 선택과  
집중, 판단해야죠.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고, 수능 1  
교시 국어 시험에서 평가원이 길러주고, 측정하려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다시, 문제에 대한 해설에 집중합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  
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  
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  
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  
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  
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  
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  
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  
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본문 4단락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일관성 : 가능성 0% = 가능세계 존재 0%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포괄성 : 가능성 1% 이상 = 가능세계 존재 확률 1% 이상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완결성 = 배중률 = 둘 중 하나 반드시 참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W1 W2 독립적.

이를 적용하면?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독립성에 따르면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첫 번째 정답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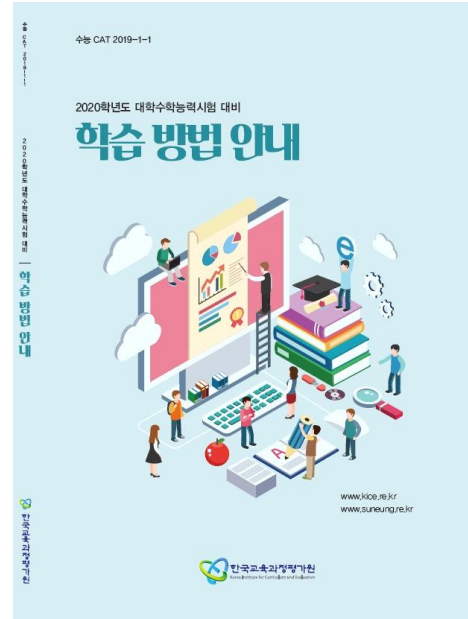
두 번째 정답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1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세계 존재 하겠군

세 번째 정답

그러나

뇌피셜 nono하쥬. 평가원 오피셜 자료 봅시다. 3)



1. 수능시험범위=2009개정교육과정 (이제는 2015개정교육과정)
2. 교과서 = 교육과정의 실현
3. 수능출제매뉴얼 = 수능 출제 원칙
4. ebs = 정부 정책에 따라 50% 또는 70% 연계 시험범위
5. 평가원 기출 = 수능 문제 은행식 출제에 따른 시험범위

그리고 평가원이 생각하는 독서의 본질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즉, 기출과 ebs 연계 배경지식을 전제하면?

		모순관계			반대관계			
ebs 에만	정의	2항관계			3항관계			
	배중률	적용 가능			적용 불가			
	예시	p	~p		참	거짓	거짓	참
ebs + 기출	참/ 거짓 관계	참	거짓	가능	참	거짓	거짓	가능
		거짓	참	가능	거짓	거짓	참	가능
		거짓	거짓	불가능	거짓	참	거짓	가능
		참	참	불가능	참		참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p와 ~p 중 하나 반드시 참이고, 보기는 반대관계이므로 완결성(배중률) 적용 불가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보기는 반대관계이므로 완결성(배중률) 적용 불가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1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세계 존재 하겠군

4번 선지 정답. 팡!

3) <http://www.suneung.re.kr/sub/info.do?m=0401&s=suneung>

누군가는

지문에서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순관계			반대관계			
ebs	정의	2항관계			3항관계			
에만	배중률	적용 가능			적용 불가			
	예시	p	~p		참	거짓	거짓	참
ebs	참/ 거짓 + 기출 관계	참	거짓	가능	참	거짓	거짓	가능
		거짓	참	가능	거짓	거짓	참	가능
		거짓	거짓	불가능	거짓	참	거짓	가능
		참	참	불가능	참		참	

보이지죠?

ebs에만 들어있는 정보가 정의인데,

정보량도 불충분한,

완결성 떨어지는 정보에서

그것도 10분 남짓 시간안에,

그 압박속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끌어낼 학생은?

전국에 148명도 없습니다.

148명. 제대로 풀었을까요?

찍거나. 감으로 풀거나.

적당히 손절할 수험생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난리만 봐도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복수정답 난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까지만 보고,

ebs연계학습 어케해요?

이런 질문 제발 nono해...

이미 우리는 무너지는 언어영역이라는 건물에서

은 좋게 안 깔려 죽었거나,

곧 깔려죽길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국어영역이라는 새로운 건물 재건축하셔야합니다.

## 수능 국어의 창조적 파괴.

이제 시작합니다.

덧. 10페이지부터의 내용은 평가원 자료에 대한 강독을 진행합니다. 흐름을 잡으며 읽어도 좋고, 2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혹,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ebs 연계라는 증거 어디있는데요?

네.

수능 출제 기관, 평가원 오피셜 다시 등장합니다.

위 문서 33페이지 수능-ebs연계에 대한 설명, 딱 그 지문, 심지어 그 문제 나옵니다.

이쯤 되면, 복수 정답 시비에 대한 평가원의 점잖은 오피셜한 답변입니다.

● 원문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

제발.

모르면, 조용히 평가원의 오피셜 따라잡시다.

## ‘빈 수레는 요란했다.’

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입니다.

머리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아 확대합니다.

2020학년도 수능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학, 전공에서 다루는 내용들인 철학, 논리학, 언어학을 비롯한 기타 전공 지식... 잠시 넣어두시죠.

1. 2020학년도 수능 체제의 특징.

에서도 확인 되는 내용. **교과 교육과정 국어는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2009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적용

이제 세부 과목. 국어로 갑니다.

01 국어 영역

가. 시험의 성격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기초로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역시 또 반복되는 용어가 나오죠?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계속해 읽겠습니다.

나. 평가 목표

1) 개관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세부적인 평가 수준과 요소는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설정하였다.

또 나옵니다.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

즉, 이것이 수능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이 문서는 매년 4~5월 나오기 때문에 작년 문서를 기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등과 달리, 국가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의 지침을 국가 교육과정으로 만듭니다.

교과 교육학 전공/연구원(일반적으로는 당시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소장학파 교수님들이 주로 집필진으로 참여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출제하는 틀을 만드시는 평가원 연구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 비중이 가장 큼) 분들이 집필하시고,

문제는 국어 교육학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공 수업을 들으며, 그 부분을 쓰신 교수님 또는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교수님으로부터 트레이닝 받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는 물론, 수능 기출 문제에 연결하는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수능 시험의 본질인

교육과정 - 교과서 - 출제매뉴얼 - 평가원 기출 - ebs 라는 축을 무시하고,

'평가원 기출'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곡해하는 과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수능 국어 대혼란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서** 독서 능력은 정보화 시대의 국어 생활 맥락과 문헌 해석 및 활용 능력이 증시되는 학문 활동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독서 영역에서는 인문학·사회학·자연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글을 제재로 하여,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가장 큰 문제인 독서 파트 보시죠. 슬슬 여러분 통념에 거슬리는, 그 잘못된 통념에 거슬리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로 배.경.지.식**

제가 도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정말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서 원흉이었다고 생각하는, 한 강사분이 계세요. 10년간 1타였다고 하는데...

**비문학**  
1. 철저한 구조적 방법 중심 강의로, 배경지식 없이도 스스로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강좌입니다.

앵??

배경지식 없이도 :

배경지식 없이도 :

배경지식 없이도 :


더 큰 재앙은...

아무리 똑똑한, 작년 수능 100점 받은 학생두요.

1타 강사가 하는 말이라면,

**출제 기관인 평가원 공문서 내용도 믿지 않아요.**

**1타 강사? 되는 법? 간단합니다. 범죵자 되죵 됩니다.**

 **배인호T** 그러면 이런 글 쓰시지 말고, **주**위에 집중해서 먼저 1타가 돼 주세요.

우선 제 입장으로 말해보자면, 이번 시험이 표점 150점짜리 시험이 된 건 평가원의 출제 방법과 학생들의 공부 방법의 괴리 탓인가요? 애초에 평가원이 시험을 왜 출제하는데요? 대학 진학에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함 아닌가요? 공부 하란 대로만 공부하면 모두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점이 아니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평가원이 지향하는 바일까요?



II 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서의 가치를 성찰하기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독서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읽기
	시대적 맥락에 따라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됨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계속해 갑니다...

독서의 본질에 대해 평가원은??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

독서의 본질이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

교과서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하향식 독서 모형'과

단어, 문장, 문단, 글 내용을 차근 차근 정리해가는

'상향식 독서 모형'으로 글을 읽습니다.

이를 '상호 작용식 독서 모형'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전제가 틀린 부분이 나오죠?

우리 대부분은 정답을 찾을 때,

출제 의도,

출제자의 사고 흐름,

출제 원칙은 생각하지 않고,

'42번의 1번 선지의 근거는 2단락 2번째 줄에 있으니,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이게 틀렸군'

또는

'43번 3번 선지는 3단락 1줄과, 4단락 2줄을 연결해 생각해 보니, 이런 추론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만합니다.

여러분.

평가원에서는 '독서'를 무엇이라 정의하나요?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의 대화적 활동" 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배경지식이 중요해지는데,

이러면 또 "배경지식"을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등등,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학습 방법을 모르니,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희대의 논리가 나옵니다.

모르면, 찾아보고, 배워야죠.

출제자들의 생각을 읽을 노력을 해야지,

결국은 잘못된 자신의 뇌피셜을 이용해 수능을 분석하고,

그게 학생이라면 혼자 인생이지만,

강사라면 배우는 수십, 수백, 수천명의 인생입니다...

여러 공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능에 전제되는 배경지식은

1. 고1까지의 범교과, 공통교과 내용 (예를들면 작년 가능세계 지문은 수2 수학 집합과 명제를 어느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올해 미토콘드리아 지문 내용 중 상당 수는 중학 과학 세포 내용이구요)
2. 문제은행으로 반복 출제되는, 평가원 기출
3. ebs 연계 지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를 넘는 배경지식은 시험범위 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되며,

대학 전공 또는 고2~3 선택과목 배경지식을 적용해 운 좋게 풀릴 수 있으나,

수능 국어 기출의 일반적 접근 원리로 확립할 수 없는 접근법이니, 무시 바랍니다.

□ 읽기(비문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글을 폭넓게 읽고 다양한 대상과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비문학)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 대한 지문이 제시된다.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며 읽는 습관 갖기
- 평소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며 꼼꼼하게 읽는 습관 갖기
-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대상을 이해하기
-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 글의 내용, 내용의 전개 방식,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하며 읽기
-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백과사전,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기능 파악하기 등

‘언어영역’ 시절의 학습방법 안내입니다.

잘 안 보이실테니...

읽기(비문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교과서와 교과서 외의 글을 폭넓게 읽고 다양한 대상과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비문학)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 대한 지문이 제시된다.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며 읽는 습관 갖기
- 평소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며 꼼꼼하게 읽는 습관 갖기
-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대상을 이해하기
-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글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 글의 내용, 내용의 전개 방식, 표현의 적절성에 대하여 비판하며 읽기

**-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백과사전,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기능 파악하기 등**

어휘도,  
 내용간의 관계 파악도,  
 글의 구조 파악도,  
 그래서 기출 지문의 양상에 대한 파악도,  
 일종의 수능 국어에 대한 배경지식입니다.  
 문장 수준 의미 분석을 할 때 쓰이는, 통사 구조 분석도,  
 그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론도,  
 사실은 우리의 배경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면 지문에 근거해서 모든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라는 완전히 과거의 잘못된 전제로 기출을 대하고 있고,**

그 결과가 현행 수능 대 참사를 부릅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수능 시험의 본질인

교육과정 - 교과서 - 출제매뉴얼 - 평가원 기출 - ebs  
 라는 축

독서의 본질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간의 대화적 활동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래의 내용은 현행 수능 시험범위인 2009개정교육과정 22페이지 내용입니다.

(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읽기는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 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 속의 내용을 확인, 해석, 추론, 비판, 반응한다. 이는 읽기 전체 과정 즉,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미리보기,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독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 이해에 적용**함으로써,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읽은 결과를 자신의 삶에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는 능동적인 읽기 태도를 기른다.

배경지식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통념이 얼마나 맞나요?

그러면 이 전제가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 2019학년도 42번 문제에 집중해보겠습니다.

42번 어떠셨나요?

명백히 판단이 안 되면, 시간을 정말 무한으로 써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세요.  
그 시간만큼 깨달음이 큼니다!

물론 42번의 정답을 실전에서 풀라낼 수는 있습니다.  
4단락 내용에 근거하면, 완결성->배중률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정답 선지가 ①, ③, ④ 선지 모두 맞습니다. 여기에  
서 **보기에 '만'** 근거하면, 정답은 4번 선지가 됩니다. 보기  
에서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중략)...것 **중 하  
나는 반드시 참이고, (후략)**

=> <보기>근거 :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다(따라서 틀린선지)**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중략)...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보기>근거 :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아닐 수 있다(따라서 틀린선지)**

이렇게 답을 좁히면, 정답은 ④번 선지 하나로 좁혀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4단락에 근거해서 풀면 답이 여러 개 나오고,  
보기에만 근거해서 풀면 답이 하나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과연 정상일까요?

보기에만 근거해 풀면,  
그래도 답은 하나로 좁힐 수 있으니,  
복수정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항 설계 오류 아닐까요?

여기서, 제발 논점을, 전제를, 시험 범위를 대학 수준,

**철학, 논리학, 언어학 수준으로 넓히지 마십시오.**

수능 국어 시험범위, 전제, 출제원칙이 아닐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옳고, 그름도 없는 진흙탕으로 빠집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해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의 시험범위는 2009 개정 고등 국어과 교육과  
정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우리나라 국어 참고서에서 가장 많은 판  
매고를 올렸고, 42번 복수 정답을 주장해 이슈가 되었던  
한 저자분과 점심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한 다리 걸쳐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다면, 내가 수능 국어에 대해 전제  
한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득...

**'수능 국어에 대해 전제한 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올해 6평 41번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답률 13%

가장 정답을 적게 고른 것이 정답이라는 희대의 문제.  
역대 최악의 오답률.

**'수능 국어에 대해 우리가 전제한 사실이 틀.렸.구.나!'**

그리고 바로...

수능 출제 원리 원칙을 살펴봅니다.

그것도, 심지어, 매년 수험생들 보라고, 출제 교수님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쓰는 바로 그 공문서...

나. 평가 목표

1) 개관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세부적인 평가 수준과 요소는 각 과목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설정하였다.

II 영역별 시험의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 EBS 연계

3)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방법
독서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독서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서의 가치를 성찰하기
	독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독서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읽기
	시대적 맥락에 따라 글쓰기 관습과 독서 문화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반영됨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읽기

사실, 보셔도... 보일 리가 없지요.

우리는 지문에 근거해 어떻게든 지문에 근거해 답을 찾고 판단하니까요.

정답은 조금 뒤 봅시다.

잠시 다시 지문, 보기로 올게요.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2019학년도 수능 42번 보기를 보면서,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하게 되는 생각을 볼게요. (그나마 1등급, 최상위권 전제)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나마 이 지문에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추론이 잘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경지식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배경지식은, 전제는, ebs연계 없이는, 수2에서 배웠던 집합과 명제입니다.

‘all = 모든’ 의 (부정) ‘some = 어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읽기는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 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 속의 내용을 확인, 해석, 추론, 비판, 반응한다. 이는 읽기 전체 과정 즉,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미리보기, 질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독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에 적용**함으로써,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읽은 결과를 자신의 삶에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 생각이나 판단 등을 글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는 능동적인 읽기 태도를 기른다.

p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의 부정인 명제는

~p :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고, 이 과정에 지문에 나온 모순관계로 세팅되어있는 상태가, 보기에 온다고, 반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문+보기 모두에 근거하는 과정에서, 패닉에만 빠지고, 정답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수능... 멘탈이 박살나는 경험, 그나마 42번이었기에 다행이죠. 이게 16번 이었다면...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ebs 연계였습니다.**

사실 ebs 연계는 2017 이후 부터 이슈였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지문 중 하나인 고전역학~으로 시작하는 2018학년도 지문 역시, 3단락에 뜬금없는 '양자컴퓨터' 이야기를 우겨넣어놓았는데, ebs 연계 문항을 만들기 위한 설계였지요. (역시 이슈가 있는 지문이니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다 드디어 터졌고, 2019수능-2020 6월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구요.**

물론, 얼마든지 이런 흐름 없이도 만점 받은 학생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방법을 보편 타당하게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그 학생은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정답을 제대로 고른 것일까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정보량도 많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80분 안에 완벽한 문제 풀이를 못하는 현 수능에서?

무엇보다 평가원이 전제한 출제 원칙에 입각한 풀이였을까요?

우리 두 눈으로 **정.확.히** 확인합시다. (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습니다.) (지식백과 가져오면 어떡하냐는 분이 계실 수 있으나,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관련 내용 백과사전 검색해보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철학의 주요개념 1·2 <배중률>  
 [네이버 지식백과]  
 배중률(철학의 주요개념, 2004., 백종현)

**배중률 즉 중간(혹은 제3자)은 배제된다는 법칙은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생각이 모두 틀릴 수는 없다"로 표현된다.**  
 어떤 생각 '가'와 어떤 생각 '나'가 모순 관계에 있다면, 분

명히 '가'와 '나' 모두가 맞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맞거나 틀리거나다. '맞다'와 '틀리다'는 모순 관계에 있는 말이고, 그래서 어떤 생각에 이 말이 동일한 관점에서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맞거나 틀리거나 중 하나다. 다시 말하면 맞으면서 동시에 틀릴 수도 없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닐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모순율이 알려주는 바다. 그렇다고 양자가 다 틀리지는 않다고 배중률은 말하고 있다.

"꽃은 열매이다"는 생각은 맞거나 틀리거나다. 이때 이 생각이 틀리다면, "꽃은 열매 아닌 것이다"는 생각은 맞을 수밖에 없다. "꽃은 열매이다"와 "꽃은 열매 아닌 것이다"가 모순 관계에 있다면, 이 두 생각이 모두 틀릴 경우 그것은 "꽃은 열매도 아니고 열매 아닌 것도 아니다"는 말인데,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두 생각이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두 생각 중 하나는 맞는다는 것을 배중률은 지시하고 있다.

**배중률을 어떤 두 생각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두 생각이 과연 모순 관계에 있는가**를 판별해 내는 일이다. "

영혼은 있다"와 "영혼은 없다"는 두 생각의 경우 여기서 '있다'와 '없다'가 모순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우리는 적어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맞으면 "영혼이 없다"는 생각은 틀리고,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맞으면 "영혼이 있다"는 생각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있다'와 '없다'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면 저 두 생각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으며, 그 맞고 틀림이 도무지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누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영혼은 있지 않지만, 나의 사랑의 힘으로서의 영혼은 있다고 말한다면, 이 말의 뜻은 논리적으로 뜯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예로서 "용은 동물이다"와 "용은 동물이 아닌 것이다"는 두 생각을 살펴보자. "용은 동물이다"라는 생각은 경험 과학적으로 볼 때는 틀리다. 그렇다면 "용은 동물이 아닌 것이다"는 생각은 맞는가? '동물 아닌 것'이 만약 '동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무엇인 것'을 함축한다면 이 생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용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금은 동물이다"와 "금은 식물이다"라는 두 생각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두 생각은 서로 반대가 되기는 하지만 모순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생각도 함께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예처럼 양쪽 모두가 틀릴 수도 있다. 반면에 "개는 동물이다"와 "개는 식물이다"와 같은 반대되는 생각에서처럼 한쪽은 맞고 다른 한 쪽은 틀리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설명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중률은 앞서 언급한 모순율의 다른 적용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모순율의 사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중률의 적용에서도 먼저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의 관계가 과연 모순관계인가** 어떤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만 배중률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이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려면 최소한 이와 같은 사고의 법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 사고의 법칙은 기본적인 논리 척도이므로, 언표도 당연히 이를 준수할 때 '논리적'이 된다.

배중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중률은 2항 관계(중간항 배제되는)인 모순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당해연도 ebs 연계 교재를 확인하겠습니다.  
ebs 수특 75페이지 (시간이 없으면 빨강색 밑줄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해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

{해제} 딜레마 논증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전제에 나오는 두 진술이 서로 반대 관계여서는 안 되고 모순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순 관계는 두 진술 중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 수박에 없고 또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일 때를 말하고, 반대 관계는 두 진술이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일 때를 말한다. 사실은 반대 관계의 두 진술을 모순 관계의 진술로 오해할 때 잘못된 딜레마 논증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잘못은 흑백 사고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주제}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

**{구성}**

- 1문단: 딜레마 논증의 형식
- 2문단: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와 딜레마 논증
- 3문단: 모순 관계의 정의와 예
- 4문단: 사고의 기본 법칙
- 5문단: 반대 관계의 정의와 예
- 6문단: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혼동으로 인한 흑백 사고의 오류
- 7문단: 딜레마 논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인 뿔 사이로 피해가기

**[지문]**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딜레마 논증은 토론에서 상대방이 피하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박에 없게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논증 형식이다. p와 q가 진술이라고 할 때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 p이거나 q이다.
- 만약 p라면 r이다.
- 만약 q라면 r이다.
- 따라서 r이다.

p를 선택하든 q를 선택하든 r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딜레마 논증도 실패하고 만다. 위 논증은 첫 번째 전제인 “p이거나 q이다.”에서 p와 q가 모순 관계여야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는데, 만약 p와 q가 반대 관계여서 p도 아니고 q도 아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두 진술 사이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옳으면 다른 진술이 그 수박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진술이 그르면 다른 진술이 옳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아래에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다.” - “지금 이곳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모순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반드시 옳은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 형식을 배중률이라 한다.** 또한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반드시 옳은 진술인데, **이러한 진술 형식을 무모순율이라 한다.** 배중률은 모든 진술이 옳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는 원리를, 무모순율은 옳으면서 동시에 그른 진술은 없다는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배중률과 무모순율은 “p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동일률과 함께 고대로부터 ‘사고의 기본 법칙’으로 일컬어진다. 사고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모순에 휘말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것들은 사고의 논리적 토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진술에 전제된 원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떤 두 진술 사이에는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두 진술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다음의 진술들은 반대 관계에 있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춥다.” - “지금 이곳의 날씨는 덥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날씨가 추우면서 덥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위 두 진술은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진술들 사이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흑백 사고의 오류도 그중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은 반대 관계의 두 진술을 모순 관계의 두 진술인 것으로 혼동하는 잘못이다. 가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모든 정치적 논쟁에서 옳고, 상대방 정당은 항상 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X는 전적으로 좋다.”라는 진술은 “X는 전적으로 나쁘다.”라는 진술과 반대 관계를 이루는 진술이다. 흑백 사고의 오류는 이 두 진술이 둘 다 그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다.

**진술들 사이의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딜레마 논증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차이를 이용해서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 **‘뿔 사이로 피해 간다.’**라고 말한다.

보이시죠? 수능 지문과 연결지으니, 출제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 지문을 보았고, 그래서 출제한 양상도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 문제를 봅시다.

ebs 수특 75페이지 4번

[문제]

4. <보기>는 배중률에 대한 비판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배중률은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반드시 옳으므로 “p이다.”라는 진술과 “p가 아니다.”라는 진술 사이에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됐건 그것은 p이거나 p가 아닌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가 빠르거나 느리게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① **배중률은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 모두에 관한 법칙**이므로 반대 관계인 예를 반례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배중률은 모순 관계에 대한 법칙**이고 “이 자동차가 빠르다.”와 “이 자동차가 느리다.”는 반대 관계이므로 적절한 반례가 아니다.
- ③ **배중률은 모순 관계에 대한 법칙**인데 “이 자동차가 빠르다.”와 “이 자동차가 느리다.”는 모순 관계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배중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 ④ **배중률은 반대 관계에 대한 법칙**이므로 어떠한 중간 지대도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 ⑤ **배중률은 반대 관계에 대한 법칙**이므로 자동차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배중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보이시나요?

ebs연계 학습을 제대로 한 학생은?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지문을 풀면서, 4단락의 배중률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모순관계 = 2항 관계 = p와~p 관계 = 둘 중 하나만 참 = **배중률은 2항 관계, 모순관계에서만 적용**

반대관계 = 3항 관계 = 춥다 / 적당하다 / 덥다  
= 둘 다 참 불가능(추우면서 더울 순 없음)  
= 둘 다 거짓 가능(적당할 수 있음)  
= 둘 중 하나 참 가능(춥다가 참 or 덥다가 참)

= **배중률은 3항 관계인 반대 관계에서 적용 불가**  
**심지어 지문, 문제에서까지 선지에서까지 물어 본 형태.**

여러분, 현실적으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2019학년도 수능 42번 보기를 보면서, 이것이, 중간항이 있는 3항 관계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수험생이 얼마나 될까요?

— <보 기> —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발문에서는, 배중률을 적용하면? 이라는 전제까지 던집니다. 과연, 지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것이 ebs 연계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자 이제, 다시 또 여러분은 회의합니다.

‘아니 시험이 이래도 되냐?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면 틀려야하고, ebs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야 한다고? 시험이 그래도 되냐고!?’



네!

됩니다.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ebs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듯, 올해 학습방법 안내 문서를 봅시다. 22페이지.

생각해보세요.

ebs 연계로.

모순관계 = 2항 관계 = 배중률 적용  
반대관계 = 3항 관계 = 배중률 적용 불가

따라서 1,3번 아웃. 답은 4번 선지.  
이렇게나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

(2019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75~76쪽, 77쪽 2번)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9번~42번 세트는 2019학년도 수능-EBS 연계 교재 중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의 75~78쪽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의 핵심 제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 수록된 지문 및 문항에서는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딜레마 논증의 활용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 모순 관계의 특성을 활용하여 가능세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 39번~42번 세트 지문이며, 이를 반대 관계의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을 개발한 것이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의 화법, 작문, 독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국어 활동을 수행하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보란 듯이 ebs 연계했다.  
라면서 예시로 설명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발 생각해보세요.  
너와 나의 통념. 잠시 내려놓고, 평가원 말만 보자구요.

ebs 연계를 전제했다면,  
학생들이 과연 해당 지문에서 모순관계-배중률 적용, 반대관계-배중률 적용 불가. 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42번은 심지어 난이도 중상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많이 틀렸다고?

제발 ebs 연계하니까 좀 봐! 라고 메시지를 준겁니다.

심.지.어

ebs 문제에서까지 문짱아요.

배중률은 모순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중률은 반대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중률은 모순관계, 반대관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  
그럼, ebs 연계 잡은 애들은, 완전 쉽게...  
'1,3번 선지는 모순관계니까 배중률 적용이 안 된다'라고 바꾸면 되겠네! 라고 판단합니다.

제발 좀...  
헛소리에서 깎시다.  
배경지식 필요없다.  
정답은 지문에만 근거해서 찾아야 한다.

누구 피셜입니까?  
출제자 피셜입니까?